

32 朝鮮水力調査書 (조선수력조사서)

이 조사서는 1930년 3월 조선총독부
 체신국에서 발간한 것으로 총 6권으로 구
 성되어 있다. 이 수력조사기간은 1922년 11월
 부터 1929년 까지 7년간에 걸쳐 조사비
 294,684엔(圓)을 투입하여 압록강을 비롯
 하여 청천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및 두만강

등 6대 하천에 대한 수력지점 조사였다

조선총독부는 이 조사에 앞서 1911년부터

1914년 까지 3년 6개월 간 90,000엔(19)을 투

입해 1차 수력 조사를 실시 했다 이 조사는

당시 실시 중이던 <조선하천조사>와 병행

해서 실시 했는데 이 조사에서 얻은 성

과는 80개 유역 지점에 57,000KW의 발전

이 가능 하다고 추정 했다

2차 수력지점 조사에서 는 유망 수력

지점이 150개소 였고 추정 수력 발전량은

220만 KW였다

당초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(합병)

한 다음 다음 세가지의 통치 방침을 세웠

다 첫째는 조선은 영리한 농업 국가로 통치

한 다 즉 공업화 하지 않고 농업 생산

증가를 일본의 부족수량을 보충하겠

는 것이었다 둘째를 일본의 상품 판매

시장을 통치한 다 1868년 명치유신(明治維新)

維新) 이후 급속한 공업화를 단행한 일본

은 이제 해외 시장도 선진 공업국들과

해 집거 당한 후 엮기 때문에 취해진 조
 처 엮기 셋째를 태복채량 (그들은 신출이름함)
 을 뒤한 병채기 지은 통치 하겠는 것
 이 그것이다

일본은 함병이 후 1920년 까지는 모든 변
 의 개선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. 개선을 준비
 가 거의 끝나자 1920년에는 조선인의 기업
 활동을 금지했던 <조선회사령(朝鮮会社令)>
 을 철폐하기 단 했다

~~조선총독부~~ 수려한 지진 조사에 수 220만세
 언제든 그차

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져서 영위하는 농업
 국가 > 로 통치 한다는 ● 방치된 비정하다
 < 남동 북공 (南東北工) > ● 정책이 그것이다
 즉 남쪽은 농업으로 주로 하고 북쪽은 공업화
 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
 냐 하면 이 당시 만주(동북 3성)에 주둔하는 100
 만 관동군의 군수 물자 주로 무기 수송비
 때문이 있다 그 당시 비만 만고위
 데르면 안보위 만주까지 무기 수송을
 위해 ~~한번~~ 3,000 톤 짜리 선박 3,000 척이

연중 양태 했더니 그 경비는 가히 자자구 흉
만 하디 이리 하여 그 품은 압록강 유역의
해천강 장진강 부진강에 댐을 만들어
유역 154 만 KW의 전력을 큰 함흥~흥남, 청진,

평양~진남포, 신의주~대산도 등 4 개소에 세계적인

공수 공업 단지 등 건설했다 이때 압록강

도둑사냥

세계최초의

개방은 유역 변경 (流域變更) 공법을 사용했고

이보 건설업도 여기서 처음이름바

기 계획-시공을 시작했었다